

후보직 출마에 대한 소견

지난해 간호계에 불어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김옥수 회장님을 보면서 저는 ‘출마’라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간호 패러다임 창조를 통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렵고 힘든 길 김옥수 제36대 회장후보의 ‘소통과 화합’의 리더십을 믿고 함께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간호를 사랑해 온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보탠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사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꿈을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. 미력하나마 모든 힘을 보태어 제36대 회장단후보의 성과가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게 간호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